

가족의 혁명적 변화와 대응*

The Global Revolution in Families and Responses of Family Members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정현숙**

Dep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

Professor : Chung, Hyun-Sook

<Abstract>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critically review the major changes of marriages and families during the 20th & 21st centuries and its impact on family relations. Especially, three topics that is, changes in the meaning of marriage, changes in the gender role and sexuality, and changes in the life span were reviewed in terms of how those changes had impacts on each family members and who had been influenced most. Also, how those kinds of changes will have influences on marriage and family relations. Finally, based on the review implications and research agendas for the family scholars were added.

▲주요어(Key Words) : 가족의 미래(future of families), 가족혁명(revolution in family), 결혼 의미(meaning of marriage)

I. 문제제기

가족학은 “사회역사적 맥락에서 가족현상, 가족문화를 분석하며, 가족행동의 내적과정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둔 학문영역”(정현숙·유계숙, 2001)이다. 이러한 정의에 기초할 때 가족을 이해하기 위해 주목할 점 중 하나는 가족이 생활하는 사회, 역사, 문화, 역사적 맥락의 변화와 이들 맥락의 앞으로의 변화 방향일 것이다.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인구학적 변화, 과학기술의 변화, 사회의 가치관 변화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에는 미래의 가족과 가족관계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공존한다. 미국과 유럽에서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 일어난 1차 인구혁명인 저출산, 고령화 및 그로 인한 인구감소현상과, 이혼, 동거, 혼외출산 및 한부모가족의 증가가 특징인 1960년부터 현재까지의 2차 인구학적 혁명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변화에 적응하거나 준비할 기회도 없이 1980년 이후 한꺼번에 혁명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출산율 감소, 만혼현상, 첫자녀 출산연령 지연, 자녀 수 감소, 동거 및 이혼의 증가, 한부모가족의 증가, 혼외 출산 및 여성의 취업 증가 등이 유럽가족의 특징적인 변화 내용이다(Bjornberg, 1992). 한국가족의 변화에 대해 변화순(2008)은 가족구조면에서 3세대 이상가구의 감소와 1인가구 및 1세대 가구의 증가현상이 나타나고 출산율과 혼인율의 감소와 노인인구증가, 이혼율과 여성경제활동의 증가가 특징이라고 한다. 또한 기능면에서 생산기능이 약화되고 소비기능 및 부부간 성생활과 여가기능의 중요성이 증가되었으나 여전히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직계가족의 가치관이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학자들에 따라 혹은 문화에 따라 현상으로 진단하는 이슈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후가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가족의 정의는 유연해졌으며, 관계에 대한 인식 또한 변화하고 있다. 특히 가족구조의 다양화와 성역할의 변화와 함께 가족관계에서 심리적인 측면이 강조되면서 가족관계의 특성들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학자들은 가족의 전지구적 혁명(global revolution in family)(Giddens, 2009; Skolnick, 2008a), 가족전쟁(family War)(Glenn, 2002; Hay, 1996), 생애과정혁명(life course revolution)(Skolnick, 2008b), 성적 혁명(sexual revolution)

* 본 논문은 2009년 한국가정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기초발표 논문을 수정한 것임.

** 주저자·교신저자 : 정현숙 (E-mail : hschung@smu.ac.kr)

(Bailey, 2009), 성혁명의 아이들(Gerson, 2003) 등으로 다양하게 명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의 변화에 대한 반응에 대해 Skolnick과 Skolnick(2009)은 3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는 가족은 변화하고 있지만 변화의 의미에 대한 견해에 불일치가 있으며, 둘째, 변화에 접근하는 인식의 문제가 있고, 셋째,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정도를 과장하는 문제를 지적한다. 이미 어떠한 변화가 전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변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개인, 그리고 가족구성원들에게는,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어떠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 가족과 사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집중되지 않고 있다. 또한 가족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로 가족관계는 미래에 어떠한 방향으로 진전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가족과 관련한 이러한 변화 속도와 변화과정, 혹은 단계는 사회와 문화,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다양한 변화의 내용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해가고 있지만 변화 정도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한 사회의 독특한 특성이 어떻게 반영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변화 중 중요한 현상 중 3가지를 선택해서 다양한 가족구성원의 관점에서 이러한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상호작용으로 미래에는 가족관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변화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 앞으로의 우리들의 과제가 무엇인가도 논의해보고자 한다. 개인용 컴퓨터를 개발한 앨런 케이(Alan Kay)가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발명하는 것”이라고 논평한 것과 가족이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현대의 가족학자들은 가족을 연구함에 있어 과거의 학자들과는 다르게 가족을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학자들(Burr et al., 1993)의 지적은 변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분석과 미래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역설하는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논문의 의의가 있다.

II. 본론: 변화의 내용, 의미 그리고 그 이후

가족변화에 대한 학자들(Bjornberg, 1992; Giddens, 2009; Glenn, 2002; Hay, 1996; Skolnick, 2008a; Skolnick & Skolnick, 2009; 변화순, 2008)의 평가의 핵심적 내용은 가족에 대한 정의의 유연성과 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인구혁명의 3가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에 대한 유연성의 관점에서 핵심적인 내용인 결혼의 의미의 변화를,

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하는 젠더와 성행동의 변화, 그리고 인구혁명으로 인한 생애과정의 변화를 선택하여 이러한 변화의 내용은 무엇이며, 이러한 변화가 개인과 가족구성원들과 가족, 그리고 사회에 어떤 의미이며, 미래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를 우선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결혼의 의미의 변화: 결혼은 죽어가는 제도인가?

혼인율 감소와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의 증가 등의 가족 변화에 대해 가족의 의미가 유연해지고 있지만 결혼제도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조혼인율은 1970년 인구천명당 9.2명에서 2009년에는 6.2명으로 감소하였으며, 평균조혼연령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평균 조혼연령은 남자 31.6세, 여자 28.7세이다(통계청, 2010). 혼인율의 감소와 평균조혼 연령 증가는 출산율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성인의 중요한 발달과업에 대한 도전이라는 인식 때문에 가장 큰 가족 이데올로기의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초반부터 한국사회는 빠른 속도로 다문화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1990년 49천명이었던 외국인체류자가 2007년에 100만 명을 돌파했다(설동훈, 2008). 2008년 5월 현재 90일 초과 국내거주 외국인주민(국적취득자, 불법체류자 포함)은 89만 명으로 인구의 1.8%에 이르며, 2020년에는 약 2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49%는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19%는 기타 외국인, 혼인귀화자 5%, 국제결혼가정자녀 6%(행정안전부 차치행정과, 2008)로 그 구성이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은 결혼의 의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학문적인 측면에서도 Amato(2004)는 독신이나 동거에 대한 사회적 허용성이 증가하면서 결혼의 중요성은 점차 감소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미국의 가족치료학회(American Association for Marriage and Family Therapy)가 학회이름에 결혼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지만, 결혼이라는 단어를 기본용어에서 삭제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미 1993년 학회에서 발표된 277개의 주제와 세부주제에서 결혼(marriage)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Blankenhorn, 1998). 이는 적어도 학문영역에서는 결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러한 예는 여성학적 관점에서 결혼과 가족이 여성의 종속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 자체를 거부하고, 경우에 따라서 결혼이란 단어를 구시대적인 용어로 인식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대적 특성이 반영될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혼인율의 감소 등의 변화를 결혼제도에 대한 도전으로 파악하고 있는 점이다.

그렇다면 혼인율의 감소가 의미하는 것이 결혼제도에 대한

도전의 결과인가? 아니면 다른 관계적인 문제 때문인가? “결혼은 구시대적인 제도이다”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약 85%는 <표 1>과 같이 결혼이 그렇게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은 제도로 삶의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은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50세 이상의 사람들이 젊은이들보다,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동거하는 사람들보다 더 높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2005년에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4년 전보다 구시대적 제도로 보는 비율이 감소한 것이다. 또한 이혼과 별거한 사람들이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보다 결혼제도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독신의 18%(05'), 22%(01')가 결혼이 구시대적인 제도라고 인식한다. 이러한 경향은 결혼자체에 대한 거부보다는 결혼생활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문제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같은 질문에 대해 미국은 10%, 캐나다 22%, 프랑스 36%(2001년 자료)가 구시대적인 제도로 인식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부정적인 답변이 높지만 대부분의 유럽국가들 보다는 결혼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라고 판단할 수 있다.

혼인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삶의 과정에서 결혼을 선택한다. 미국의 경우 90% 이상이 평생 한번 이상은 결혼을 한다(Amato, 2004). Cherlin(2009)도 21세기 미국 가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 결혼을 가치있게 여기며, 두부모가족이 아이를 기르는 가장 일반적인 삶의 방식으로 남아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도 30대 중반이후 각 연령별 결혼인구를 살펴보면 97% 이상이 기혼이다(정현숙, 2006). 또한 이혼자들의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가정법률상담소(2003)의 재혼

가족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이혼 후 재혼의 비율이 55.4%를 차지하며 이 수치는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우리나라 혼인 중 재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남자 19%, 여자 20.6%를 정점으로 감소추세이지만, 2008년 다시 여성은 19.2%, 남자는 17.5%로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09). 이러한 재혼율의 증가는 우리나라에서 결혼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혼의 지위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알 수 있다. 즉, 관계에서의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혼인을 통한 관계맺음 행위는 인간의 가장중심적인 욕구이며, 사회적으로 구성된 중요한 역할로 자리잡고 있다는 증거이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족이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인식은 2001년 보다 2005년 더 증가한 패턴을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표 1>과 <표 2>의 질문에 응답한 우리나라와 미국, 그리고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혼의 의미가 같은 것인가? Cherlin(2004)은 결혼과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인식은 두 번의 전환기를 거치면서 변화되었다고 한다. 첫 번째는 Burgess와 Locke(1945)가 분류한 것으로 법, 제도와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결합이 강조되는 제도적 결혼(institutional marriage)에서 동료애, 우정, 낭만적 사랑이 강조되는 동반자적 결혼(companionate marriage)으로의 변화이다. 두 번째는 1960년대 이후 동거, 맞벌이, 이혼 및 혼외출산이 증가하면서 개별화된 결혼(individualized marriage)으로의 변화이다. 이러한 결혼은 부부관계에서 역할이 유연해지고, 두 사람 간 협상이 자유러워지고, 자신의 자아감의 발달이 중요한 만족의 척도가 되는 결합을 의미한다. Skolink(2009a)도 “모든 결혼은 행복한 결혼과 불행한

<표 1>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우리나라 사람들의 제도로서의 결혼에 대한 태도

“결혼은 구시대적인 제도이다”		아니다		그렇다		계(명)	
		2001	2005	2001	2005	2001	2005
성	남	88.2	87.8	11.8	12.2	604	598
	여	80.5	85.8	19.5	13.6	595	602
연 령	15~29세	76.0	83.1	24.0	16.2	313	278
	30~49세	86.1	86.1	13.9	13.7	619	568
	50세 이상	90.3	91.0	9.7	9.0	267	354
결혼지위	결 혼	87.6	89.8	12.4	10.2	823	773
	동 거	57.1	71.4	42.9	28.6	7	7
	이 혼	42.9	65.0	57.1	35.0	14	20
	별 거	83.3	66.7	16.7	33.3	6	6
	사 별	88.9	96.0	11.1	4.0	27	50
계 총	독신/비혼	78.3	80.8	21.7	18.4	322	343
	상	82.7	87.5	17.3	12.5	463	8
	중	85.7	87.8	14.3	11.9	680	934
	하	82.1	83.3	17.9	16.8	56	297

자료: World Value Survey의 한국(2001, 2005) 자료 저자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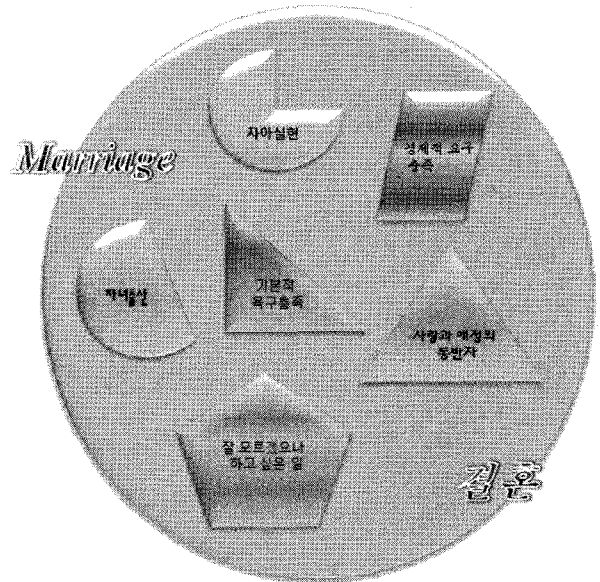
<표 2>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삶에서 가족의 중요성은”	남자		여자	
	2001	2005	2001	2005
매우중요하다	89.6	91.3	89.6	92.8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9.9	8.5	10.1	7.1
전혀 중요하지 않다	0.5	0.2	0.3	0.0
계	604	598	596	602

자료: World Value Survey의 한국(2001, 2005) 자료 저자가 분석.

결혼이 있다”는 톨스토이의 말이 틀렸음을 강조하면서 행복한 결혼도 한 가지 모습이 아니며, 결혼의 정서적 핵심만 훌륭하다면 어떤 생활 형태로 살아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Skolnick과 Skolinck(2009)은 Bernard(1982)의 결혼에 대한 비판을 인용하면서 결혼은 가까운 미래에 없어질 라이프스타일은 아니라고 결론짓는다. “미래의 결혼은 사회의 다른 제도만큼이나 확실하게 존재할 것이다... 남자와 여자들은 친밀감(intimacy)을 지속적으로 원하고, 그들은 상호성(mutuality)을 추복하고, 혼인성사로서의 결혼을 위해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고 정신적인 동반자로서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원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감이 사라지거나 이들 간의 관계가 일상화되고 잠시 지나가는 것이 될 것이라는 어떠한 가능성도 거의 없다(P. 301)”.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혼을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박민자(2004)는 1980년대 이후 혼인관련 논문분석을 통해 1970년 이후 우리나라의 혼인제도가 제도적 결혼에서 우애적 혼인의 의미로 변화되었으며, 2000년 이후는 결혼의 의미를 개인의 성장, 자아실현 등 개인중심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 즉, 관계를 통한 자아실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신혼부부들은 결혼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사랑과 애정이라고 한다(정현숙, 2006). 그러나 여성학적 관점이 반영된 학문분야에서의 이러한 이념적인 결혼에 대한 인식이 일반대중들에게서도 그대로 반영되어있는가? 혼인관계에서의 거부장적 특성들, 배우자선택과정에서 혼수 등 결혼과정의 문제점, 처가와 구별되는 시집의 권력, 농촌층각들의 아시아여성과의 결혼 등을 볼 때 학술적인 분야에서의 판단과 같이 결혼이 우애적 사랑과 개인의 성장의 장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매우 회의적이며, 보편적 이념으로서의 결혼과 일상생활과 관계로서의 결혼이념간에는 괴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혹시 결혼은 <그림 1>과 같이 이제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모양과 크기가 다양한 여러 개의 모양이 공존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념적으로 평등적이고 동반자적인 결혼을 추구하는 집단이 있는가 하면, 결혼이 자아성장의 장이라고 생각하는 집단도 있을 것이다. 또 어떤 집단은 조건과 필요에 의한 경제적 동반자를 만나는 과정이 결혼이며, 사회적



<그림 1> 결혼의 다양성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가 결혼이라고 인식하는 집단 등 결혼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이 하나의 결혼이라는 이념을 구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논의는 다문화가족의 결혼양상을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과연 아시아계 여성들과 결혼하는 우리나라 남성들은 결혼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소위 평등적인 결혼과 자아실현을 위한 결혼의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라는 것이 있는가? 아니면 결혼은 그 필요가 무엇이던지 서로의 필요에 의해 우선 결합되고, 사회적 지원에 의해 애정과 조건을 맞추어가는 것인가? 과연 국가가 결혼에 관여하는 것이 사생활 침해는 아닌가? 아니면 출산이 갖는 사회적 중요성 때문에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국가에서 혼인자체를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태어난 자녀는 그들의 가족구조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것이 더 적극적인 조치가 아닌가? 이러한 의문은 국제결혼이나 결혼이주여성들의 교육과 지원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중점사업이 주로 한국으로 이주해온 여성들의 한국사회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어교육과 한국요리를 포함한 문화 습득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출산율 증가를 위해 결혼을 공개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변화하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와 행동변화를 볼 때 결혼과 동거에 대한 새로운 이해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유럽 국가들의 출산자녀 중 1/2이상이 혼외출산이다. 왜냐하면 동거가 결혼의 대안으로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들 국가에게는 “부부(couple)는 결혼한 부부와 합의에 의해 함께 사는 부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두 사람이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서로 결혼생활과 같은 관계를 가지며 같은 집에서 살 때 합의에 의한 결혼으로 파트너로 이해되어야 한다.”(UN/ECE, 1998, p. 71)고 명시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혼인율과 출산율과의 관계는 거의 무의미하다. 결혼의 이상이 무엇이던지 간에 결혼은 구조가 아니라 기능이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구조만을 강조하는 결혼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시기이다.

물론 개인과 가족과 사회의 관계에서 보면 민주주의의 발달 단계에 따라 가족 내에서의 평등도 함께 이루어질 때 개인의 행복은 담보될 수 있으며, 관계에서의 정서적 만족의 장애요인은 바로 경제적 불평등, 성별문제 및 지배권과 같은 요소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강조하는 집단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개인의 교육수준, 처한 환경, 그리고 삶의 경험에 따라 다양한 요소들이 사람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현숙(2006)은 혼인율의 분석을 통해 혼인율변화는 1) 인구구조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며, 2) 젊은이들의 만혼경향으로 일정기간 결혼을 늦추게 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며, 3) 현재의 경제상태를 반영하였으며, 또한 4) 전반적인 결혼시장에서의 인구구조의 변화와, 5) 혼인제도의 변화 등을 반영한 거시적 사회환경의 변화와 개인적 인식의 변화가 상호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한다. 또한 현재의 경제적 상황에 의해 비자발적인 미혼집단들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는 바로 다양한 결혼이념을 가진 집단들이 자신의 이념에 반응한 결과일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결혼이 죽어가는 제도일 수도 있다. 그러나 미래사회에서도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갖고, 결혼하지 않고 동거를 하며,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하며, 결혼을 거부하고, 결혼한 사람들도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패턴이 유지될 것이다.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를 위한 중요기준이 결혼이라고 생각할 것이며, 또한 대부분은 자녀를 키우는 가장 중요한 환경이 가족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물론 학자들은 자신의 이상에 따라 바람직한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미래의 그림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평등성과 헌신 및 정서적 유대가 관계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등적인 측면만이 결혼의 이상이라고 강조한다면 또 다른 많은 집단들, 예를 들면 아시아여성과 결혼한 남성들의 다문화가족의 결혼관계의 특징들은 간과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혼인율 감소의 원인은 결혼제도 자체에 대한 거부라기보다는 결혼

제도를 거부하는 일부집단들의 거부이며,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 여건 때문에 본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벌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논문들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결혼이 죽어가는 제도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동거의 증가 때문이다. 동거, 혼외출산, 이혼, 재혼의 증가 및 만혼과 같은 사회적 현상들은 성인의 삶에 자발성이 증가하고 영속성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동거는 성도덕의 위기로 인식하거나 정상가족제도에 대한 사회적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동거에 대한 정확한 통계 파악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사실혼과 대중매체에서 다루어지는 기사이외에 몇몇 논문(예, 김지영, 2004)이 있으나 동거에 대한 분석논문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동거의 효과를 논의하는 것도 역시 한계가 있다. 그러나 Casper와 Bianchi(2009)는 비록 동거가 미국 사회에 만연하지만 최소한 미국에서는 동거가 결혼의 대체는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다. 그 이유는 계획된 결혼의 수순으로, 미래에 대해 확신하지 못해, 그리고 젊은 커플들은 결혼비용이나 살집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것일 뿐 동거하는 커플은 궁극적으로 결혼을 하기 때문에 동거가 구애의 한 단계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국가에서는 동거가 아동양육을 위한 표준적인 삶의 방식이 되었다. 따라서 동거의 증가라는 표현을 쓸 때, 미국(구애과정의 단계)과 유럽(커플관계의 한 유형), 그리고 우리나라(결혼제도에 대한 도전)는 매우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게 된다.

결국 결혼율의 감소와 동거의 증가는 하나의 혁명적 가족의 변화 현상이지만 그 안에 내포된 의미는 문화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즉, 결혼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생의 과정으로서의 선택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결혼제도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으로 계속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결혼율이 감소하는가 혹은 동거율이 증가하는가 아니라 사회적 변화에 따라 사람들은 결혼을 무엇으로 인식하는가? 혹은 이러한 결혼율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들이 결혼생활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나의 이념적인 이상으로서의 평등한 결혼만이 바람직한 것이라는 독선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또한 결혼에 대한 다양한 인식이 개인들의 삶에, 그리고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가에도 초점을 맞추는 연구를 통해 실체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과연 미래의 결혼은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이러한 변화에 대한 학자들의 역할과 결혼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인가? 결혼에 대한 태도변화가 가져온 이러한 변화를 위기로 인식하는 관점도 있지만 반대로 가족의 변화에 대한 유연성이 증가한 것으로 보는 관점도 공존한다. 미래에는

결혼의 대안적 형태들이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널리 퍼질 것으로 예측한다(Amato, 2004). 『2025, 미국과 지구촌의 과학기술발전으로 인한 시나리오들』이라는 책에서 미래 사회에는 가족형태나 구조면에서의 변화도 예측하고 있다(Coates et al., 1996). 그 중 하나는 미래 사회에는 파트너와 관계 맺는 방식이 다양해 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우선 결혼 대신에 동거(Cohabitation)나 사실혼관계와 같은 동거가 보편화되는데, 이들의 특징은 자신의 물건이나 소유 은행구좌를 따로 가지고 일시적으로 결합하는 유형이다. 또 다른 유형은 실험결혼(Trial marriage)으로 일정한 기간 함께 살면서 비용을 동일한 비율로 분담하고, 동거 및 비용분담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거를 공유하지만 소유는 각자 유지하는 형태이다. 브로커를 통한 결혼(The brokered marriage)도 나타나 관계정립을 계약으로 설정하며, 재정구조, 가사, 행동강령 및 조건을 계약에 제시하고, 이런 조건을 어기면 이들 결혼은 자동 해지되는데 재산소유, 이혼시의 재산분배 등 각종 규칙이 사전계약서에서 다루어진다. 생애파트너(Life partners)관계도 등장하는데 이성 혹은 동성부부가 정식으로 결혼신고를 하고 재산은 공동소유를 하지만 언제든지 이혼제안의 권리를 갖는 형태이다. 그러나 이혼은 변호사가 없이도 계약 파기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결합(Economic unions)도 나타나는데 성인과 아동들이 필요에 의해 함께 동거하여 공동체를 결성하고 상호이익을 위한 재정분담을 계약하는 유형이다. 처음부터 공동체 유지의 기간을 명시하지만, 상호분쟁이나 문제 발생으로 공동체를 해체할 때는 주 또는 연방법에 따른 이혼법이 아닌 자신들의 결별법에 따라 공정히 처리한다. 이러한 유형들은 결국 관계 맺는 방식에서 개인들의 선택이 더욱 강조되고 개별화된 결혼이 더욱 세분화되며, 두 사람간의 계약으로서의 관계가 강조되는 유형이다.

이러한 관계맺는 방식의 다양성은 정보화 사회의 과학기술의 가속화로 더욱 다양해 질 것으로 예측된다. 컴퓨터 혁명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온 방식을 깨닫지 않고는 아무것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고 이미 20세기 초에 예언한 미국의 사회학자인 쿨리(Cooley, 1902)는 미래를 준비하는 가족학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보화와 과학기술의 발달은 가족관계 전반에 다양한 방법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정보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관계의 내용과 관계맺음 방식의 변화이다. 현재 인터넷상에서는 기존과는 매우 다른 관계맺음 방식들이 있다. 인터넷상의 관계맺기는 아이러브스쿨(I love school)과 같은 사람찾기 사이트로부터 진화되었다. 월드컵 때의 응원열기나 촛불시위와 같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도 인터넷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좀 더 발전한 형태의 관계맺기는 놀이공간으로서의 싸이월드(cyworld)나, 일본의 믹시(mixi) 같은 사이트들이다. 이러한 가상공간 내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친족관계인 일촌을 만들고 그들 간에 비밀스런 대화와 관계를 형성한다. 이에 한발 더 나아가 미국의 페이스북

(facebook)과 같은 사이트는 놀이뿐만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진 모임으로 발전되어 인맥쌓기와 정보를 얻는 주요 장소이다. 린든리서치사에서 만든 세컨드라이프(www.secondlife.com)는 제2의 천지창조로 받아들여진다. 이 사이트는 가상현실공간으로 이곳에 사는 거주자는 미국인 30%, 독일인 11%, 일본인 4%, 중국인 1.3% 비율이다(장준호, 2007. 10). 이곳에서 세계 각국의 개인들은 집을 짓고, 직장에 다니며,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한다. 이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에서의 삶도 살지만, 인터넷상에서 국제결혼도 하고 현실에서와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생활한다.

아이러브스쿨, 네티즌의 촛불시위 모임,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싸이월드에 이어 제4세대의 세컨드라이프와 같은 인터넷 세상에서 인간들이 기대하는 것은 소속감이다. 소속감을 통해 사람들은 정서적 위로와 위안을 기대하며,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추구한다. 그러나 세컨드라이프에서의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이 아닌 정신적인 사랑이다. 결국 과학기술의 발달에서도 이를 수 없는 근접성과 자발성에 바탕을 둔 가족관계가 이러한 과학과 함께 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018년이 되면 컴퓨터 음성인식과 동시 통번역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이러한 기술이 개발되면, 세계인이 자유롭게 인터넷 상에서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세계는 하나로 연결될 것이다. 이미 빌 게이츠는 2018년이 되면 종이신문이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현재의 Web 2.0에서 미래의 Web의 버전이 무엇이 될 것인지 그리고 인터넷 상의 관계맺음 방식이 어디까지 진화할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지만, 이러한 세계에서 가족과 같은 인간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중요할 것이라는 예측은 가능하다.

사람들이 결혼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은 더욱 다양해 질 것이다. 그러나 높은 결혼율과 높은 이혼율 둘 다의 결합은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 동전의 양면을 나타내는 것(Skolnick, 2009b)과 같이 어떤 이유로 결합을 했건 결혼이후의 파트너들 사이에서 감정적 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건강하고 안정된 결혼을 돕는 일은 여전히 가족학자들과 상담가, 정책가들의 핵심공약이 될 것이다. 즉, 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다양한 가족들에 대한 허용성이 증가할지라도 지금의 가족패턴 역시 다양한 유형 중 하나의 유형으로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Goode(2009)은 “특별한 종류의 가구나 집단이 아니라, 사람들간의 특별한 관계”(family as a special kind of relationship between people rather than a particular kind of household or group)로 가족을 정의하는 것이 이론적 중요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그 이유는 대부분 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적 조건에서, 사람들은 가족의 전통적인 어떤 것이 빠질 경우 가족 같은 사회적 유형-가족적인 패키지-를 발전시키기 때문이다. 가족적 패키지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지속성(continuity)과 친밀성(familiarity)인데, 이러한 관계에서는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며, 이러한 기대가 돈과 재화를 공유하고

서로를 돕게 하며, 개인의 애정과 동료애의 욕구를 포함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미래에도 상호지원적일 것이라는 것을 기대한다. 따라서 미래의 결혼은 점차 유연성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Cherlin(2009)의 주장과 같이 결혼은 이전보다 더 선택적으로 되고, 개인적인 보상이 강조되지만, 전통적인 경제적 지원체계로서의 역할은 남아있을 것이며, 자녀들의 삶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2. 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

: 사회적 성과 성행동에서의 혁명적 변화

가족과 같은 친밀한 관계가 다른 관계와 구별되는 가정 핵심적인 특성은 성과 관련된 관계 특성이다. 이러한 성과 남녀의 역할과 지위에서의 평등과 관련된 사회적 성(gender)에 대한 혁명적 변화와 성적인 행동과 표현에서의 개방성을 포함하는 성행동(sexuality)에 대한 혁명적 변화를 의미한다. 20세기 이후 여성지위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성과에 대한 대규모 연구를 통해 성과에 대한 실체가 규명되고 있으며,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적극적으로 쾌락적 성과에 대한 성행동에 대한 허용성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중매체의 성과에 대한 과감한 표현에 대중들은 점차 관대해지고 있는데, TV에서의 즉석 만남프로그램과 외도현장을 중계하는 프로그램 등은 성적 혁명의 증후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혁명적 변화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성과의 혁명으로 인한 여성, 어머니에게 미친 영향, 부부관계, 남편-아버지에게 미친 영향과 자녀들에 미친 영향과 의미로 4가지로 구분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인 성과에 대한 태도의 변화와 성행동의 허용성에 대한 첫 번째의 해석은 이러한 변화의 최대 수혜자는 여성이라고 평가하며, 이로 인해 여성은 사회적 관계에서 평등과 성적자유를 얻었다고 평가된다. 과연 여성들은 사회에서 평등적 지위를 얻었는가? Jackson(2009)은 남성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건간에 현대의 경제제도와 정치제도는 성적평등에 영향을 미치고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켰는데 이러한 변화의 추세를 이제는 거스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이 제정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발전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등 남녀평등과 일과 가족을 양립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과 제도가 정비되었다. 또한 여성부의 활동을 통해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어 사회적 관점에서 성적평등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는 마련되었다. Skolinick(2009a)도 20세기를 거쳐, 학교, 사업영역, 직업, 그리고 다른 제도들은 점차적으로 성별에 대해 중립적 입장이 되어 갔다고 주장한다. 즉, 적어도 원칙에 있어서는 현대 민주주의

제도에서 법적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불평등 요소들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인 평등을 측정하는 여러 지표들의 수치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평등수준은 아직도 변화과정에 있음을 보여준다. 세계경제포럼의 2007년 세계남녀격차 보고서에서는 2006년 61.6%였던 한국의 남녀격차지수 점수가 2007년 74.1%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전기택, 2008). 특히 교육성취도, 건강과 생존 부분에서는 격차가 낮지만, 경제참여와 기회, 정치권한 부여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UN의 인간개발보고서도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아직도 낮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는 각국의 교육수준(성인 문자해독율, 취학율), 국민소득, 기대여명 등 주요통계를 토대로 인간능력의 개발정도를 평가하는 지수이며, 남녀평등지수(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GDI)는 남녀 각각의 교육수준, 기대여명, 소득에 있어서 남녀의 역할 비율 등을 근거로 남녀간에 성취수준이 얼마나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수이다. 젠더역량지수(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는 여성의 의회의원 점유율, 관리직·전문직 비율, 소득에 있어서 여성 역할비율 등을 근거로 정치, 경제 분야에서 여성이 얼마만큼 권한을 행사하는가를 보여주는 척도이다. 한국은 인간개발지수와 남녀평등지수는 26위이지만, 젠더역량지수는 64위이다(UNDP, 2007). 이 결과는 제도적인 면에서나 여성의 성취에 비해 사회에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자신의 역할 수행에는 여전히 많은 장애가 있음을 보여준(정혜정 등, 2008). 실제로 정치적, 경제적 힘에 있어서의 여성들의 낮은 위치, 더 나은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직업들에서의 남성들의 독점, 여성들의 낮은 평균임금, 여성들에게 부과된 가족에 대한 돌봄 책임, 맞벌이 가족에 대한 지원의 부재 등(Jackson, 2008)은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고 있는 불평등의 증거들이다.

개인과 가족 삶의 전 지구적 혁명이라는 논문에서 Giddens(2009)는 성과(Sexuality), 정서적인 삶, 결혼, 가족 안에서의 변화에 따라 사람들이 자신과 관계에 대한 사고방식에서의 변화가 있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경제적 현대화의 또 다른 물결을 경험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민주적 사회의 이상과 가족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상간의 강한 공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전통적인 가족에서는 양립할 수 없었던 양성간의 평등성과 여성의 성적인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를 문제로 인식하지만 Giddens(2009)는 전통적 가족의 지속이 어느 면에서는 이러한 변화보다도 더 걱정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에서는 여성의 교육과 평등을 통해 민주주의와 경제적 발달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선제 조건은 바로 전통적 가족의 변화이며, 성적인 평등은 민주주의의

핵심적 원리일 뿐만 아니라 행복과 성취와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는 바로 개인과 사회의 관련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사회적 성에 대한 태도의 변화와 성행동의 허용성의 결과에 대한 두 번째 해석은 결혼관계, 즉 부부관계에서 평등이 이루어졌다는 해석이다. Harris(2006)는 평등성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해 비록 모든 학자들이 일관된 요소들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사에 대한 공평한 분담, 공동의 의사결정, 비위계적인 의사소통, 평등적인 성관계와 상호존중과 호의의 차원이 결혼생활의 평등을 위한 5가지 중요요소라고 한다. 이상의 차원 중 가사일의 분담과 권력을 많은 학자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적한다. 이러한 평등의 기준을 볼 때 가족 밖의 세상이 더욱 큰 성별 평등을 향해 움직여가고 있는 동안에 가족 내의 여성과 남성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변화의 속도가 느리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가족에서의 민주주의가 구현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혼율 증가가 성별불평등 문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Hackstaff(2003)는 부부들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성별불평등이 이혼의 주요원인임을 강조한다. 또한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오늘날의 이혼문화가 일시적인 현상이며, 결혼에 대한 모든 관점에 있어서, 더 나은 평등을 향한 변화의 일부 분일 거라는 흥미로운 결론을 내리고 있다.

개인의 태도와 사회적 변화와의 겹은 또한 성혁명으로 인한 성적 표현에서의 자유가 증가하고 데이트 패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성적이중 기준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데에서도 찾을 수 있다. England와 Thomas(2009)는 대학생들의 데이트는 감소하고 인스턴트연애(Hook up)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미국 사람들의 초혼 평균 연령은 21세기에 들어 여성 25세, 남성 27세로 1960년에 비하여 4년 늦춰졌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젊은 세대가 결혼을 일찍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혼인 전에 성관계를 갖거나 함께 사는 것이 논쟁거리였기 때문이지만, 부모로부터 일찍 독립하고 독립적인 주거를 확보한 젊은이들에게 성혁명으로 인한 즉석만남의 가능성은 혼인을 늦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비록 일부 대학생들은 전통적인 방식의 데이트를 통해서 관계를 시작하기도 하지만, 성적인 행동과 관련되어 규정되는 즉석만남이 관계로 나아가는 주요한 방법이 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즉석만남의 문화가 어떠한 성적인 접촉을 하지 않고 관계를 맺고자하는 여성에게는 불리한 방법이며, 즉석만남이라는 문화 자체가 성에 대한 관념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지만 남성 및 여성의 성적 만족감 또는 이러한 행동에 대한 평가가 평등하지 않다는 점이다. 즉 이러한 관계에서도 성에 대한 이중기준이 여전히 존재하며 남성의 성적 만족감이 여성의 만족감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즉석만남의 증가는 Rosenfeld(2009)가 “독립적인 생의 단계: independent life stage”라는 미국의 젊은이들의 삶의 방식과 관련이 있다. 대부분의 고등학교 졸업자들

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학업을 계속하거나 직업을 갖는다. 이러한 독립적인 생의 과정 때문에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데이트나 배우자선택에 대한 간섭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Rosenfeld(2009)는 젊은이들의 부모로부터의 이동성과 독립이 동성, 다른 인종 간의 결합 등 비전통적인 연합이 증가하는 이유라고 분석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젊은이들의 독립의 시기가 늦어지고, 부모에게 의존성이 증가하면서 결혼과 가족관계에서 보수적인 성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성에 대한 사회적 허용성에 비해 사람들의 인식은 매우 보수적이어서 성행동의 의미와 변화에 대한 대중매체의 조사들은 있으나 학술적인 측면에서의 체계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하여 성혁명의 구체적인 실체는 여전히 알려진 것이 별로 없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대해 개인과 사회는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논의와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첫 번째가 여성, 두 번째가 부부관계에서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라면,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에서의 또 다른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남편과 아버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과연 남편들은 성혁명의 수혜자인가 아니면 피해자인가, 아버지들은 어떠한 위치에 와 있는가? 왜냐하면 성역할 변화로 여성과 어머니 역할 수행에 대한 관심은 집중되었지만 이러한 변화가 아버지들에게 어떠한 의미인가에 대한 논의는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성들의 삶에 혁명적 변화를 일으킨 요인은 성혁명과 이로 인한 자녀와의 관계에서의 혁명이라는 Goldschneider(2000)의 논의는 우리들에게 많은 통찰을 제공한다. 아버지 역할이 획기적으로 변화한 첫 번째 계기는 바로 성 혁명 그 자체이다. 성 혁명은 여성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고 이것이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을 변화시켰다. 기술과 경제체제의 변화에서 비롯된 성 혁명은 성인들의 생산적인 역할을 재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왜냐하면 기술발달은 인구학적 변화, 수명의 증가와 출산율 감소로 연결되면서 여성의 생산적 삶을 급속도로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사망률과 출산율 감소는 여성의 삶을 근본적으로 재구조화시켰는데, 과거에 비해 더 적은 수의 가족과 길어진 삶의 과정에서 어린이를 돌보는 일이 더 이상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전업의 경력직이 아니게 되었다. 여성들은 점차 가정 밖의 일을 하면서 자신들의 성인역할구조를 바꾸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에게 가족과 일은 둘 다 주요한 책임영역이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여성이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만큼 남성은 역할 변화요구에 반응하지 않았고, 이에 실망한 여성들은 이혼과 동거를 선택함으로써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대응은 남녀관계에서 평등적 역할을 재구조화하는 계기가 되지만, 남성들은 아이들을 떠나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여성들은 부모역할과 가사일을 독점함으로써 부모역할이 줄어들 것을 거부했으나, 이러한 수퍼무먼적 역할에는 한계가 있었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남성들은 전업주부를 두고 가장 역할을 할 수 있었으나, 대부분

남성들은 여성들이 원하는 가족경제에 대한 기대를 맞추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들은 집에서 가사 일만 하는 것을 가치 없는 일로 여기게 되고 여성취업률이 더욱 증가하게 되면서 여성들의 자식에 대한 관심은 과보호로 이어지고 부모 역할을 독점하게 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맞벌이가족에서 부부간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는 Hochschild와 Machung(2003)의 표현을 빌면 “second shift”에서 남편이 가정과 아이들을 돌보는 몫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중산층 가족에서는 아버지들에게 더 많은 참여와 정서적인 요구를 한다.

바로 이러한 점이 여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수퍼맨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되었다. 여성의 가사 일에 대한 가치 하락은 남성의 임금에 가족생활에서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는 계기가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여성이 자녀양육에 몰두하면 할수록 가족의 경제적 요구는 더 커지고, 남성들은 더욱 많은 시간을 일해야만 이런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 여성들은 가족 내에서 자신들의 영역을 확고히 하면서 점차 권력을 형성해 나가는데, 이러한 권력은 기러기가족의 여성과 자녀중심의 권력구조에 잘 나타나있다. 비록 이런 관계가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약해지지만, 이 과정에서 부부들은 예전 신혼기 때의 애정을 다시 극복하기 어렵다. 남성들을 여성과 가족에 연결시키는 유일한 고리는 경제적 책임감을 통해서이다. 남편이 은퇴한 이후 경제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부부간의 갈등은 증폭되는데, 이는 남편의 사회적 일은 끝이 나지만 여성의 가사 일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기 때문이다. 남편이 은퇴한 후 다시 부부관계에 편입되지 못하면, 남편들의 소외와 외로움은 증가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앞으로의 기술발달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여성들의 취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성들의 교육수준은 더욱 높아지고, 정치영역을 포함한 사회의 다양한 영역과 가족에서 여성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확고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며, 아버지 역할에 대한 변화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정현숙·육선화, 2008).

남성역할에서 획기적인 두 번째 혁명은 아버지와 자녀관계의 변화를 통해서이다(Goldschneider, 2000). 이혼과 동거가 증가하고, 레즈비언들이 냉동정자를 이용해 자녀를 출산하면서, 부모역할의 관점에서 남성들의 삶은 안정성이 약해지고, 가족 삶의 중심에서 점차 멀어지게 되었다. 첫 번째 성혁명으로 남성들의 삶의 중심은 이미 가족에서 일터로 이동하였는데, 이혼 후 여성들이 대부분 양육권을 갖게 되면서 아버지들은 자신의 아이와 떨어져 살게 되고, 재혼을 통해 잘 알지 못하는 아이에게로 다시 삶의 중심이 옮겨가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자녀부모관계에서 딸과 어머니는 서로 중요한 사회적 지원망의 역할을 하지만, 미국의 경우 이혼 이후 남자들은 자신의 부모와만 가족유대를 유지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아버지 역할 뿐만 아니라 여성, 자녀 모두에게 위기가 된다. 아버지들의 권리와 책임감은 약해지지만 경제적 부양책임은 여

전히 아버지에게 전가되면서 남성들은 여성들과는 또 다른 불평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들의 현재 위치이다.

그렇다면 미래의 아버지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성혁명과 부모자녀관계의 변화는 미래의 과학기술의 발달로 그 복잡성이 더욱 증가될 것이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가족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자녀의 사회화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결혼과 출산은 동일시되었으며, 평균 자녀수도 많다. 그러나 피임약의 개발 및 출산기술의 발달은 가족관계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한 출산기술의 발달은 부모자녀관계의 복잡성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다. 결혼하지 않은 독신여성, 레즈비언 여성, 불임부부들도 인공수정을 통해 출산을 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생물학적 부모와 양육 부모가 다를 수도 있으며, 이혼과 재혼 등의 증가로 생물학적 부모, 양육부모, 현재 거주부모 등 다양한 부모자녀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면서 관계의 복잡성은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복잡성으로 인해 아버지의 권리와 아버지자녀관계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 될 것이다. 냉동정자를 이용해 독신여성이나 레즈비언들이 인공수정을 통해 출산을 하면서 아버지들은 아버지 역할을 선택할 수도 없으며, 자식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것이다. 사회는 양성평등이 이뤄졌으며, 냉동정자 수정을 통해 독신어머니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남성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여성의 파워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출산에 앞서 아버지에게 출산을 알리지 않는 여성의 권력이 남자들의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비록 많은 국가에서 아동양육관련법을 통해 여성이 아버지를 밝히도록 하지만 그 실효성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정현숙·육선화, 2008).

이러한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남성들은 과학기술의 도움으로 친자확인이라는 행동으로 권리 찾기에 나서고 있다. 많은 아버지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기꺼이 돈을 지불함으로써 친자확인 사업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결국 부부관계에 대한 신뢰감 상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친자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부부관계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버지들에 의해 친자확인이 증가하는 것은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신과 출산은 여전히 여성들의 몫이며 여성들이 출산의 주체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정현숙·육선화, 2008). 이와 같이 여성이 임신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되면서 남성들의 소외와 불평등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Goldschneider, 2000). 예를 들면, 피임약을 쓸 때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이야기해야 하지만, 여성들이 남성들을 경제적 유용성 관점에서만 인식하면서, 피임약 사용을 상대방에게 이야기 하지 않는 경우도 증가할 수도 있다. 또한 여성들은 출산 후에도 친정의 도움을 더 받고, 이혼할 때도 양육권을 가지는 비율이 증가하는데, 동거 후나 이혼 후 임신의 경우도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아 존재자체도 모를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아

버지들의 권리찾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미혼모들이 아버지 성을 부여함으로써 법적, 경제적 비애를 더하는 것보다는 비공식적으로 한부모로 사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버지를 굳이 아버지로 명명하기를 주저한다는 것이다(Goldschneider, 2000). 우리나라에서도 한부모자녀가 부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었다. 독일에서도 재혼을 하는 것보다 한부모가족으로 사는 것이 사회복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재혼보다는 동거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미래사회에서는 아버지의 권리찾기 운동과 남성학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밖에도 과학기술의 발전은 이전과는 다른 부모자녀관계로 인해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높인다. 예를 들면, 불임여성들이 보관해 놓은 냉동정자를 이혼 이후나 사별 후에도 사용할 권리가 있는가하는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남편 사후 인공수정을 한 여성이 친자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다(한겨레신문, 2003. 11. 12). 남편이 병사한 지 1년이 지난 뒤 의료기관에 냉동 보관된 남편의 정자로 체외수정을 해 이듬해 남자아기를 출산한 이 여성이 낸 친자확인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남편이 체외수정에 동의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 여성은 아기가 태어난 뒤 출생신고를 했으나 남편이 숨진 뒤 300일이 넘었다며 구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에서도 거부당하자 친자확인 소송을 냈었다. 이러한 사례는 하나의 예일 뿐이며 앞으로의 과학기술 발달은 대리모, 동성부모의 임신 등 다양한 사례로 발전되면서 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새로운 논의와 정의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남성들에게 자녀의 존재를 알리고,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법적 권리를 갖기 원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경제적 낙태권'이 주어져야 하며, 아버지에게 아버지임을 알리지 않는 여성에게 법적제재를 가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Goldschneider, 2000). 이러한 논의는 사회가 결혼과 가족행동을 개인의 선택적 관점에서 인식하지만 여성과 남성 성을 동등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실제로 여성학은 여성들의 권리에 많은 기여를 했으나, 이러한 과정에서 남성들의 소외가 가속화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기러기가족도 자녀들의 복지를 위한다는 목적이 있으나, 그 내면에서 남성소외현상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결국 부부관계에서의 평등성을 확보하는 것이 미래의 가족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넷째, 마지막으로 이러한 성혁명의 사회에서 사회화된 성혁명의 자녀들은 어떠한가? 과연 성혁명을 이룬 부모들의 자녀들이 얻은 것은 무엇인가? 오늘날 과학의 발달, 성혁명과 제도적 변화의 주체이면서 또한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받은 부모들을 보면서 자란 자녀들은 부모들과는 다른 삶을 살 것인가? 현재를

살고 있는 아동의 관점에서 부모의 세대와 가장 큰 차이점은 생애과정, 경제, 성혁명을 포함한 사회의 변화로 인해 이들에게 필요한 자원이 변화된 사회에서 산다는 것이다(Hernandez & Myers, 2003). 성혁명시대의 자녀들은 형제수와 두부모에 의한 양육의 감소, 맞벌이의 증가로 인한 가정경제향상과 아버지직업의 불안정성 증가 및 유아기 때 부모이외의 양육 증가, 교육열 증가와 평준화된 고등교육기회 확대 등으로 부모세대와는 다른 삶의 경험을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선 가족수의 감소 특히 자녀수의 감소는 아동들의 동료애에 대한 경험의 제한을 의미한다. 형제는 연령, 욕구, 활동이 가장 비슷한 가족성원이면서 가족원중 가족자원의 가장 큰 경쟁자이며 또한 가장 중요한 동료이다. 따라서 돌봄과 친밀한 동료애를 형제들과의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가족수의 감소, 특히 자녀수 감소는 아동기에서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잠재적 동료애의 절대적인 감소를 의미한다. 또한 가족수의 감소는 자녀들에게는 교육과 직업 및 경제적 성취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경험은 결국 Cherlin(2009)이 분류한 개별화된 결혼이념에 영향을 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한부모가족, 맞벌이가족과 재혼가족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증가는 아동의 생활방식과 삶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킨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경제적 생산, 부모역할과 아동양육은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졌었다. 그러나 산업혁명으로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집에서 떨어진 직장으로 삶의 중심이 이동했으며 집안일과 양육은 어머니가 담당하였다. 현대의 아이들은 두부모의 맞벌이가족이나 혹은 한부모 가족에서 살게 되고, 부모이외의 사람에 의해 양육된다. 그러나 맞벌이가족의 증가는 가족의 경제적 향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모세대보다는 더 나은 선택과 경험의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하며, 양극화로 정반대의 경험도 가능하다. 이러한 변화에는 부모세대의 교육수준의 향상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변화 과정에 있는 자녀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 Gerson(2003, 2009)은 후기청소년기와 초기성인기, 즉 18~30세의 자녀들을 가족 변화의 역동성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한 젊은이들로 규정하고 이들 "성혁명시대의 아동"을 통해 이 문제에 접근하였다. 이 연구는 이들 세대의 구성원들이 성인기로 전환을 시작하면서 그들의 부모에 의해 시작된 사회적 성에 대한 변화를 어떻게 자신들의 일과 가족의 책략으로 만들어 가는지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매우 흥미로운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120명(60%는 비히스패닉 백인이고, 20%는 흑인, 18%는 히스패닉, 6%는 아시안)이며, 심층 life-history 인터뷰 결과 이들은 18세가 되기 전 비전통적 가족유형을 경험하는데 1/3은 아동기 중 어느 시기에는 한부모가족에서 살고, 40%는 오랜 기간 부모들이 맞벌이를 했다. 나머지도 자신의 가족을 일반적으로 전통적이

라고 생각했으나 결혼에 어려움이 있었거나 어머니가 일시적으로 일을 하는 등 어떠한 변화를 겪은 가정에서 성장했다. 중요한 연구결과는 3가지이다. 가장 중요한 연구결과는 가족과정과 게다가 아동의 삶에 가족구조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결과이다. 즉, 이들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한시기의 가족구조보다 시간에 따라 가족이 변화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어머니의 취업지위와 가정에 있는 부모의 수가 가족에서의 어린이의 경험의 주요결정요인은 아니며 가족과정, 즉 가족구성원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중요하다. 아동의 관점에서 궁극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정서적, 경제적 안정성과 가정 내에서의 상호존경적인 역동성과 부모와 다른 양육자의 애정적인 돌봄이 있는가 등으로 가족구조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중요 질병, 알콜 중독, 실업, 가족의 이동 등의 외적인 조건에 의한 삶의 변화가 아동에게 주된 영향요인이 되는데 이러한 일은 어떠한 가족구조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또 하나 중요한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직업지위는 전반적인 맥락을 볼 때 덜 중요하다는 것이다. 계층, 연령, 성을 통제했을 때, 자녀들은 엄마가 일하는가 아닌가에는 관심이 없으며, 왜 일을 하고, 엄마가 일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엄마와 아버지가 어떤 돌봄의 형태에 의존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균형적 관점에서 아동들은 그들 엄마의 고용이 여러 수준에서 유용하다고 본다. 어머니의 직업은 가족에게 더 많은 경제적 안정을 주고 자원을 증가시키며, 엄마의 만족도와 자율성을 높이고 경쟁의 본모기를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아이들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경제적 자원을 보장해주는 직업을 얻을 능력과 지지적인 일의 조건과 일과 가족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유연성이 있는가를 걱정한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결과는 아동은 부모와 사회의 영향에 대한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회를 해석하고 그들의 사회적 세계에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반응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남녀아동 모두 일과 가족에 대한 비슷한 높은 열망을 가지고 있으며, 헌신과 자율성을 모두 강조한다. 그러나 경제적인 압력과 시간을 요구하는 직업적 스트레스에 대한 요구에 대해 성혁명의 세대의 여자들은 한부모가족이 되더라도 개인적 자율성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남아들은 맞벌이를 선호하지만 그래도 남성의 경력과 직업이 가장 중요한 삶의 의미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결과는 일과 사회영역에서 이들이 추구하는 평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비록 이들이 대부분 비전통적이고 평등적인 이상을 수용해 왔으나, 이런 목적을 성취하는데 사회적 지원이 충분치 못하다는 것도 이해한다. 그러나 이들 세대는 정치적인 비전이 없으며, 가족과 일의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 성향을 보인다. 그러나 이들 자신의 높은 교육수준과 부모로부터의 경험을 통해 얻은 높은 이상과 기대는 사회적 제도를 통해서만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지원의 부족은 결국 결혼자체를 침식시키

고 파트너와의 긴장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결국 성혁명의 자녀들은 사회의 지원 없이는 자신들의 이상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세대들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또다시 개인의 변화와 가족의 변화가 사회의 변화와 함께 가야하는 당위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3. 생애과정 혁명

: 길어진 삶의 과정은 개인과 가족에게 어떤 의미인가?

의학기술의 발달은 영아 사망률을 급격하게 감소시키고 평균수명을 증가시켰다. 70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가 불을 만들어 냈으며, 16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는 자연이나 사물 모두가 살아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죽은 자를 매장했는데 이때의 평균수명은 25세를 넘지 않았다. 식인풍습이 종교적 제례의식으로 정형화되던 3만 년 전에 마침내 평균수명이 30년을 넘어서게 된다(자크 아탈리, 2007). 과학과 의학기술의 발달은 평균수명을 연장시킴으로서 인간의 본질에 대한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출산과 관련된 행동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기술의 발달로 10년 내 사용이 보편화될 첨단기술 중 하나는 장애 없는 이상형의 아이를 디자인해 출산하는 것(2012년)이며, 2025년에는 줄기세포 활용도 보편화되어 평균수명은 더욱 더 길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박영숙, 2007. 10.). 고령화 사회에 급속도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2000년에서 2018년까지 불과 18년 만에 또다시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18년부터 8년 후인 2026년경에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속도로 고령화가 이루어진다면 2050년에는 55세 이상 인구가 전 인구의 절반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생애과정의 혁명은 어떠한 의미인가?

첫째,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가족관계의 전 기간이 길어질 것이다. 특히 가족관계에서 부부, 부모, 조부모역할을 하는 시기가 이전보다 길어지게 된다. 그러나 길어진 기간에 비해 이혼의 증가로 관계의 안정성은 약화될 것이며, 3, 4, 5세대 이상의 세대관계로 가족관계가 복잡해질 것이다. 하지만 세대간 유대가 약화되면서 가족의 돌봄기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래학자들은 가족의 부양을 사회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가족의 부양을 지나치게 기능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것이다. 물론 치매노인을 포함해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장기보호를 요하는 부양 등에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아동양육을 통해 얻는 생산성이나 성취감은 여전히 중요한 개인의 욕구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균수명의 증가로 길어진 부부역할과 부모역할을 개인의 발달과 사회의 변화에 얼마나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수행해나가는가가 가족의 안정성에 중요한 과업이 될 것이다.

둘째, 평균수명의 증가로 질병이나 노화의 정도가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요사망 원인별 사

망률(통계청, 2006)에 따르면, 중풍 등의 뇌혈관질환이 인구 10만명 당 61.4로 다른 질병보다 가장 높다. 실제로 2007년 우리나라 치매환자는 40만명, 뇌졸중(중풍)환자는 63만 명이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7년 말 현재 국내의 치매·중풍 환자는 100여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가족(4인 가족 기준)까지 고려하면 500여만 명(한국인 10명 중 1명)이 치매·중풍의 고통 속에 살고 있다(중앙일보, 2008. 5. 26). 치매와 중풍으로 인한 고통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한다. 건보공단은 치매 환자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3조4000억~7조3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중풍환자 치료비(1조원)까지 감안하면 10조에 육박한다. 한국치매가족협회의 조사(2008)에 의하면 치매환자의 경우 82%가 집에서 부양된다. 돌보는 사람은 남편(25%), 며느리(23%), 부인(20%), 딸(19%), 아들(7%)의 순이며, 60%는 환자를 요양시설에 맡기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 가족에서는 환자부양비를 포함한 경제적 문제(34%)가 심각한 문제이며 이와 함께 심리적 문제(25%)와 가족갈등(24%), 건강문제(16%)까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균수명의 증가로 질병이 가족의 삶에 함께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Bell과 동료들(2004)은 질병과 결혼생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이들은 심각하거나 만성적인 질병이 가족관계에 있을 때 부부들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치료적 방법을 제안한다. 이러한 가족에게 삶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함께, 질병을 안고 오랜 기간 살아야 하는 문제, 질병이 있는 상황에서의 성적 친밀감을 유지하는 문제 등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부부관계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사회에서는 평균수명의 증가와 더불어 가족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질병이나 노화를 지원해주는 사회적 지원과 전문인력을 양성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평균수명의 증가로 세대관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Bianchi et al., 2006; Davey et al., 2003). 세대관계는 평균수명의 증가뿐만 아니라 가족과 관련한 다양한 인구학적 특성, 예를 들면 결혼과 친족관계 및 출산 등을 포함하는 생애과정의 변화에도 기인한다. 예를 들면 이혼과 재혼의 증가, 독신가구의 증가, 평균수명의 증가, 출산율의 감소, 늦은 출산 및 여성의 취업률의 증가 등 가족구조의 변화는 가족내의 세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소이다. 이러한 변화는 노인세대의 돌봄, 일과 가족의 양립등과 같은 가족의 역할변화를 야기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조부모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새로운 인식과 과업들이 강조되기 시작하였으며, 정책적인 면에서의 변화도 촉진시켰다. 또한 가족에 대한 가치가 반영된 독신가구의 증가와 같은 주거패턴과 삶의 방식은 가족구성원들간의 도움과 지원 및 교환에 영향을 미쳤다(정현숙 등, 2011). 이러한 사회적 변화뿐만 아니라 세대프로그램의 사회적 효과와 다양한 학문분야에서의 연구도 세대관계에 대한 관심을 증가하는데 기여했다. 즉, 세대간의 교환이 가족과 지역사회가 경험하는 급

변하는 사회적 변화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Roodin, 2004)에서, 그리고 아동과 노인발달, 교육학, 정신건강과 노인학 분야의 연구 결과에 기인한다(Davey et al., 2003). 아동발달, 교육, 정신건강, 노인학 등의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고립감, 낮은 자존감, 비일관적이고 낮은 가족 간의 접촉, 버려졌다는 느낌의 증가와 같은 노인들의 삶의 상황과 아동과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제들, 예를 들면 낮은 학교 참석률, 학교탈락, 낮은 동기, 반사회적 행동, 아동과 청소년의 가족으로부터의 떨어짐과 같은 환경과 이들에 대한 부적절한 돌봄, 제한된 지원체계, 약물복용, 빈곤 등의 문제들이 증가하면서 세대간 관계와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구의 고령화에 의한 인구사회학적 변화가 세대 간의 공존기간을 장기화하게 되고, 기능적인 가족을 위하여 조부모와 다른 친족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김혜경, 2006), 가족 내의 다세대간 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세대관계의 중요성은 미래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 이유로 김혜경(2006)은 3가지를 강조하는데 첫째, 인구의 고령화에 의한 인구사회학적 변화가 세대 간의 공존기간을 장기화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있으며, 둘째, 기능적인 가족을 위하여 조부모와 다른 친족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이며, 셋째,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세대 상호간의 견고성과 유연성이 더 강해지기 때문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사회에서의 생애과정은 개인의 선택으로서가 아니라 필연으로 길어지고 복잡해질 것이다. 이러한 생애과정의 변화로 인한 가족관계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인식하고 준비하는 세대관계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III. 결론: 변화에 접근하는 인식과 앞으로의 과제

지금까지 살펴본 가족의 변화와 의미를 파악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 본 논문에서는 3가지 점을 중심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는 변화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한 연구자의 역량강화의 필요성이다. 가족에서 벌어지고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에 많은 학자들이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가족의 변화를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으로 반영하는 과정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가족생활은 연속성과 변화, 만족과 불만족이 조화된 복합적인 성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으로 나타난 결과를 해석하느냐에 따라 매우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가족 문제가 사회화 되면서 대중매체에서 가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많은 전문가들이 자신의 관점과 이론으로 현상을 분석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족의 본질 자체가 정확한 진단과 판단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가족(family)이라는 단어에서 보듯이 가족에 대한 친숙

성(familiality)은 문제의 정확한 진단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다. 즉, 우리 모두 가족에서 나서 자라 가족에 대해 너무나 많이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의 경험을 통해 가족현상 전체를 일반화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데 이러한 욕구가 바로 가족연구의 어려움 중 하나이다(Skolnick & Skolnick, 2009). 이러한 이유로 현실에서 뿐만 아니라 대중매체에서는 누구나 가족전문가가 된다. 그러나 연예인들의 인기를 학자들은 절대 따라 잡을 수 없다. 우리 학자들은 그들과는 차별되는 역량이 필요하다. 가족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한 끊임없는 독서와 연구가 바로 연구자들의 역량강화의 과정일 것이다.

가족연구의 또 다른 어려움은 가족에 대한 이상적인 이미지로 가족의 현재 상황을 항상 과거와 비교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성향이다. 비록 이러한 환상이 신화일지라도 이러한 신념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중, 정책가, 그리고 가족을 공부하는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일 것이며, 이것 또한 학자들의 몫이다. 그러나 사회과학의 연구결과에 대한 비판을 통해 Glenn(2001)은 가족문제에 대한 논의와 일련의 논쟁들이 합의된 결론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사회과학의 결과의 모호성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무선표집을 포함한 연구의 정교화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며, 그 결과 경험적 주장을 할 수 있는 정확한 측정이 부재하기 때문인데, 그 결과 객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식의 후기실증논적인 논쟁을 하게 된다. 사회과학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정확성과 객관성이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여성가족패널(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패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아동패널(육아정책연구소) 등을 포함한 가족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패널데이터가 표집되지만, 연구모듈이 가족의 실체를 얼마나 파악할 수 있는가와 또한 이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된 자료들이 얼마나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으며 유용한가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가정학분야의 다양한 학회들은 점차 세분화되어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학회들이 각 학문분야의 발전을 위한 이론의 적극적인 토론장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학자들이 다양한 이론과 방향 제시는 활동가와 정책가들에게 소중한 자원이 된다. 비록 학술지평가와 체계적인 심사를 통해 질적인 논문이 발표되고 있으나 논문의 질적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학자들의 역량강화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이다.

둘째는 가족과 관련된 연구주제에 대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이다. 왜냐하면 가족연구의 또 다른 어려움 중 하나는 가족과 관련된 주제들이 강력한 정서를 일으키는 주제라는 점이기 때문이다. 물론 앞에서도 결혼과 가족관계에서 중요한 특성과 덕목이 정서적인 측면이라는 점을 살펴보았지만, 가족과 관련된 일련의 행동들은 매우 정서적인 문제이고 낙태, 성교육, 한부모, 동성애자의 권리 등의 주제는 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 신념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이슈들은 정치적이기도 하다.

“사회과학이 가치중립적이어야 하고 이념적 논쟁을 피해야 하는가?” 아니면 “사회과학이 사회적 변화를 설명하는 도구가 되어야만 하고, 정확한 가치와 이념적 입장을 가져야 하는가?” 이러한 이분법적 질문에 대해 Glenn(2001)은 두 관점은 모두 타당화 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이념의 본질을 검토한 후에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념은 1) 실체의 본질에 대한 믿음과, 2) 어떤 것이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인가 혹은 바람직하고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일련의 믿음이나 가치이며, 궁극적 가치와 파생적 가치로 나뉜다.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는 궁극적 가치에 대한 예는 행복이 불행보다 나은 것이며 삶은 죽음보다 좋다는 것이다. 반면 이차적인 가치 혹은 파생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 가치나 경험적 실체의 본질에 대한 믿음으로 예를 들면 “결혼안정성은 아동의 복지에 기여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와 같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실증주의적인 관점에서 지식은 객관적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가치중립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해석학적, 비판적 관점에서는 주관적 진실창조를 위해 가치지양성이 요구된다. 사회과학은 궁극적 가치를 이끌어내는 것과 관련된 실체에 관한 신념의 타당성을 제공한다. 가족관련 이슈들은 대부분 경험적인 문제이다. 가장 이념적 논쟁이 많은 가족관련 이슈들은 어떤 점에서 보면 파생적인 가치들이 상호 경쟁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가치들은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논쟁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연구자가 어떠한 관점에서 연구를 했건, 연구자의 의도했건, 얼마나 정교하게 그리고 정교하지 않게 연구가 되었던 연구결과와는 이러한 논쟁에서 근거로 이용되어진다.

예를 들어 “가족구조가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논의는 이혼과 재혼,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증가하면서 주목받는 연구주제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양극단을 형성한다. 이혼에 관한 가장 유명한 연구 중 하나는 Wallerstein과 동료들(Wallerstein & Kelly, 1976; Wallerstein, 1986; Wallerstein & Blakeslee, 1989; Wallerstein et al., 2000)의 연구이다. 이들의 연구 결과는 이혼이 한부모가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이들 연구 대상의 표집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다. 이혼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해 Amato(2000)는 이혼가족의 아동과 성인은 복지의 많은 측면에서 결혼한 부부가족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내며, 이혼자체가 복지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부모 자녀관계의 붕괴, 이전배우자와의 계속된 갈등, 정서적지지의 상실, 경제적인 어려움, 부정적 생활사건의 증가(이사 등)는 이혼한 가족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매개변인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다른 극단은 1958년~1991년까지 영국아동에 대한 Cherlin 등(1998)의 종단적 연구이다. 이들은 7, 11, 16, 23, 33

세에 정서적 문제점수를 측정했는데 연구대상 아동들은 모두 7세까지는 두부모 밑에서 성장했다.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라 정서적 문제점수의 궤도를 그렸는데, 분석결과 이혼한 가족의 자녀들은 7세에 이미 정서적인 문제를 보여 이혼한 부모의 자녀와 이혼하지 않은 가족의 아동의 정서적 문제의 차이가 이미 이혼 전에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 Harris(1998)는 쌍생아 연구를 통해 아동의 성격과 행동의 다양성은 50%는 유전적 영향에 의해, 나머지 반은 아동의 동료집단에 의한 영향에 주로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에서의 성장이 부정적 결과의 실제 이유가 아니며, 아동기 때의 경험이 아니라 유전이 이혼가족의 아동이 그들의 결혼에서 실패할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으로는 McLanahan과 Sandefur(1994)의 연구는 한부모와 재혼가족에서의 성장은 높은 학교 중퇴율과 심대입신율과 관련이 있으며, 청년들의 경우 학교에 있거나 혹은 직업시장에서도 낙태함을 보이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하는 점은 이러한 연관성의 인과적 관계의 정도는 얼마나 큰가 하는 점이다. 또는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모두 함께 검토가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런 관련성이 인과적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부정적 결과를 경험하는 비율과 경험하지 않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의 통계적 유의성에서 30%가 설명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70%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각각의 통계적 기법의 기본가정과 다를 수 있는 데이터의 특성 및 통계분석을 통해 나온 연구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 가하는 문제도 검토되어야 한다. 결국 이러한 과정에서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혹시 우리 학자들이 주장하는 평등지향적 결혼과 가족관계의 이념이 1960년대 미국사회학회에서 대부분의 연구들이 중산층 주부를 통해 얻은 결과를 일반화 함으로써 중산층주부들의 사회학이라고 비판했던 것과 같은 맥락은 아닌가도 숙고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더 아쉬운 점은 변화하는 가족의 실체에 접근하는 체계적인 과정적 연구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세상을 알아가는 더 효과적인 방법은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고 비판적인 사고의 가장 큰 적은 기존의 사고방식(mind set)이다.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는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며,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잘못 인용하는 것보다 더 문제는 잘못된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연구에 임하고 연구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가도 중요한 과제이며 또한 연구윤리의 확립을 위한 노력도 학자들의 역량강화 영역이 될 것이다.

셋째, 사회변화를 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회과학분야에서 가족에 대한 시각은 가족에 대한 제도적 관점에 초점을 둠으로써 가족체계내의 과정적, 개인발

달적 요소를 간과하며 가족을 무한정 순응적이고 수동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정현숙, 2004a).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는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규정하며 그 안에 포함된 개인들의 자율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가족의 다양성을 간과한다. 그러나 앞으로 가족의 변화의 속도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며 가족의 구조적, 관계적 다양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가족을 보는 새로운 관점으로 포스트모던 가족론이 필요하다. 이 관점을 가족을 총체적인 사실로 보는 무의미함을 지적하면서 가족과 사회제도 사이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강조하며, 사회현상의 다양성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가족이 끊임없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가족을 사회와 사적영역의 경계 혹은 관계성 위에 위치시키며 고립된 영역이 아닌 자율적인 영역으로 본다(정현숙, 2004a).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일어나는 가족의 변화와 우리의 변화는 속도 면에서나 내용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현재의 변화를 정확하게 진단하게 미래의 방향을 예측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가 예측하는 가족의 변화내용이나 시기는 실제의 미래사회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사회의 가족은 “성혁명의 아이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기나 변화내용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여 사회적·경제적으로 소외되는 가족이 없도록 사람들의 의식을 다양화하고,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또한 가족은 변화하고 있지만 변화의 의미에 대해서는 일치되는 견해가 없다. 이 변화를 가족의 위기와 해체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적응과정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쟁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변화에 대한 인식보다 더 심각한 것은 Skolink(2009)에 의하면 이혼의 증가, 동성애에 대한 수용의 증가 등을 지극적인 진화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보는 관점은 둘 중 하나의 선택으로 몰고 가는 우리의 분석 태도이며, 이러한 태도가 가족이 직면하는 실제적 문제점을 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미래사회는 The Commission on Social Justice(1994)의 예측과 같이 미래사회는 가족 내에서는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 간 관계에 대한 재협상이 요구되고, 사업장의 고용주들은 집에서 일 할 수 있는 새로운 근로방안, 또는 아이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나 이를 위한 시간탄력제도 등을 준비해야하는 새로운 요구에 직면하고 있으며, 국가는 사회적 안전망 확충과 아동양육과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요구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유연성과 다양성의 관점에서 우리가 가장 친숙하게 알고 있는 가족에 대한 정교한 진단을 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진단을 통해서만이 가족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가정법률상담소(2003). **재혼가정 실태조사**. 2003년 1차 한국 가정법률상담소 심포지움.
- 김지영(2004). **동거를 통해 본 성별관계의 지속과 변형**.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경(2006). 3세대가족과 핵가족의 세대 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부양관련 태도의 차이. **진리논단**, 13, 55-77.
- 박민자(2004). 혼인의미의 시대적 변화. **가족과 문화**, 16(1), 109-135.
- 박영숙(2007. 10.). 세계미래회의 2007 참관기 - 미래 사회의 10대 트렌드. 월간조선.
- 변화순(2008). 가족정책의 방향정립과 가족영향평가의 시행. **젠더리뷰**, 8, 4-14.
- 설동훈(2008). 다문화 사회에서의 문화 상호 교류. **새국어생활**, 18(1).
- 장준호(2007. 10.). "IT세상의 변화"에 대한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학생 대상 특강.
- 자크 아말리(2007). **미래의 물결**. 위즈덤하우스.
- 전기택(2008). 한국의 성평등, 1등 국가들과 거리는. **젠더리뷰**, 8, 62-68.
- 정혜정 · 공미혜 · 전영주 · 정현숙(2008). **가족과 젠더**. 신정.
- 정현숙(2004). 결혼전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 91-101.
- 정현숙(2004a). **공동체 형성의 기초로서의 동북아가족론: 정서적 통합을 위한 과제**. 한국동북아지식인연대 편,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pp. 299-339). 동아일보사
- 정현숙(2006). 혼인을 특성, 변화요인 분석과 가족정책 제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6), 177-194.
- 정현숙(2008). 사회경제, 인구학적 요인과 이혼율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1), 51-67.
- 정현숙 · 옥선화(2008). **가족관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정현숙 · 유계숙(2001). **가족관계**. 신정.
- 정현숙 · 최연실 · 이금룡 · 황혜신(2011). **세대프로그램**. 신정.
- 통계청(2009). 2008년 혼인통계 결과.
- 통계청(2010). 2009년 혼인통계 결과.
- UN개발계획(2007).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 2007**.
- Amato, P.(2000). The consequences of divorce for adults and children. In R. Millardo(Ed.), *Understanding families into the new milolenium: A decade review* (pp.488-506). NCFR.18
- Amato, P.(2004). The future of marriage. In P. Amato & N. Gonzalez(Eds.), *Vision 2004: What is the future of marriage*(pp. 99-102). Minneapolis: NCFR.
- Bailey, B. (2009). Sexual revolutions. In A. S. Skolnick & J. H. Skolnick(Eds.), *Family in transition*(15th ed.)(pp. 125-141). Boston: Allyn & Bacon Pub.
- Bell et al.(2004). Marriage and illness: Therapeutic conversations with couples who are suffering. In P. Amato & N. Gonzalez(Eds.), *Vision 2004: What is the future of marriage*(45-52). Minneapolis: NCFR.
- Bjornberg, U.(1992). Parenting in transition. In U. Bjornberg(Ed.), *European parents in 1990s; Contradictions and comparisons*(pp. 1-14). New Jersey: Transaction.
- Blankenhorn, D.(1998). *Normalizing divorce*. Proposition, 2, 9.
- Burgess, E., W., & Locke, H.(1945). *The family: From institution to companionship*. N.Y.: American Book Co.
- Burr, W., Day, R., & Bahr, K.(1993). *Family science*. Pacific Grove, Brooks: Cole Pub. Co.
- Casper, L. C., & Bianchi, S. M. (2009). Cohabitation. In A. S. Skolnick & J. H. Skolnick(Eds.), *Family in transition* (15th ed.)(pp. 152-164). Boston: Allyn & Bacon Pub.
- Cherlin, A.(2003). Going extrens: family structure, children's wellbeing, and social science. In In A. S. Skolnick & J. H. Skolnick(Eds.), *Family in transition*(13th ed.)(pp. 284-297). Boston: Allyn & Bacon Pub.
- Cherlin, A. J.(2004). The deinstitutionalization of American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6, 848-861.
- Cherlin, A. J.(2009). American marriage in the early twenty-first century. In A. S. Skolnick & J. H. Skolnick (Eds.), *Family in transition*(15th ed.)(pp. 171-192). Boston: Allyn & Bacon Pub.
- Cherlin, A. J., Chase-Lansdale, P. L., & McRae, C.(1998). Effect of parental divorce on mental health throughout the life course. *American Psychological Review*, 63, 239-249.
- Coates, J. F., Mahaffie, J. B., & Hines, A.(1996). *2025: Scenarios of US and global society reshaped by science and technology*. Oakhill Press.
- Davey, A., Savla, J., & Belliston, L. M. (2003).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 In J. J. Ponzetti, Jr.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Marriage and Family Relationships* (2nd ed.) (pp. 918-922). N.Y.: Macmillan.
- England P., & Thomas R. J. (2009). The decline of the date and the rise of the college hook up. In A. S. Skolnick & J. H. Skolnick(Eds.), *Family in transition*(15th ed.) (pp. 141-152). Boston: Allyn & Bacon Pub.

- Gerson, K.(2003). Children of the gender revolution: Some theoretical questions and findings from th field In A. Skolnick & J. Skolnick(Eds.), *Family in transition*(12th ed.)(pp. 103-114). Boston: Allyn & Bacon Pub.
- Gerson K. (2009). What do women and men want?. In A. S. Skolnick & J. H. Skolnick(Eds.), *Family in transition* (15th ed.)(pp. 109-114). Boston: Allyn & Bacon Pub.
- Giddens, A. (2009). The global revolution in family and personal life. In A. S. Skolnick & J. H. Skolnick(Eds.), *Family in transition*(15th ed.)(pp. 25-31). Boston: Allyn & Bacon Pub.
- Glenn, N.(2002). Social science findings and the family wars. *Society*, May/June, 13-19.
- Goldschneider, F.(2000). Men, children, and the future of the family in the third millenium. *Futures*, 32, 525-538.
- Goode W. J. (2009). The theoretical importance of the family. In A. S. Skolnick & J. H. Skolnick(Eds.), *Family in transition*(15th ed.)(pp. 13-25). Boston: Allyn & Bacon Pub.
- Hackstaff, K. B.(2003). Divorce culture: A quest for relationship equality in marriage. In A. Skolnick & J. Skolnick(Eds.), *Family in transition*(12th ed.)(pp. 178-189). Boston: Allyn & Bacon Pub.
- Harris, J. R.(1998). *The nature assumption: Why children turn out the way they do*. N.Y., Free Press.
- Hays, S.(1996). *Cultural contradictions of motherhood*. Yale University Press.
- Hernandez, D., & Myers(2003). Revolutions in children's lives. In A. Skolnick & J. Skolnick(Eds.), *Family in transition*(12th ed.)(pp. 263-283). Boston: Allyn & Bacon Pub.
- Hochschild, A. R., & Machung, A.(2003). *The second shift*. NY: Penguin Books.
- Huddleston-Casas, C. A., & Gillman, S.(2004). Single or married...I'm still working and poor. In P. Amato & N. Gonzalez(Eds.), *Vision 2004: What is the future of marriage*(67-76). Minneapolis: NCFR.
- Jackson, R. M. (2009) Destined for equality. In A. S. Skolnick & J. H. Skolnick(Eds.), *Family in transition*(15th ed.)(pp. 101-109). Boston: Allyn & Bacon Pub.
- McLananhan, S., & Sandefur, G.(1994). Growing up with a single parent: what hurts, what help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Morgaine, C.(2003). Alternative paradigms for helping families change themselves. In D. J. Bredehoft & M. J. Walcheski(Eds.), *Family life education: Integrating theory and practice*(pp. 177-185). NCFR.
- Rosenfeld, M. J. (2009) Alternative unions and the independent life stage. In A. S. Skolnick & J. H. Skolnick(Eds.), *Family in transition*(15th ed.)(pp. 164-171). Boston: Allyn & Bacon Pub.
- Skolnick, A. (2009a). Grounds for marriage: How relationships succeed or fail. In A. S. Skolnick & J. H. Skolnick(Eds.)(15th ed.), *Family in transition* (pp. 192-201). Boston: Allyn & Bacon Pub.
- Skolnick, A. (2009b). The life course revolution. In A. S. Skolnick & J. H. Skolnick(Eds.), *Family in transition* (15th ed.)(pp. 31-40). Boston: Allyn & Bacon Pub.
- Skolnick, A. S., & Skolnick, J. H. (Eds.), *Family in transition*(15th ed.). Boston: Allyn & Bacon Pub.
- Strong, B., & DeVault, C. (1992). *The marriage and family experience*(5th Eds.). St. Paul: West publishing Company.
- UN/ECE(1998). Recommendation for the 2000 census of population and housing in the ECE Region, *Statistical Standards and Studies*, no. 49. N.Y.: United Nations.
- Wallerstein, J. & Kelly, J.(1976). The effects of parental divorce: Experiences of the child in later latency.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6, 256-269
- Wallerstein, J.(1986). Women after divorce: Preliminary report from a ten-year follow-up.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6, 65-77.
- Wallerstein, J., & Blakeslee, S.(1989). *Second chances: Men, women & children a decade after divorce*. N.Y.: Ticknor & Fields.
- Wallerstein, J., Lewis, J., & Blakslee, S.(2000). *The unexpected legacy of divorce*. N.Y.: Hyperion.
- Waren, E., & Tyagi, A. W.(2003). *The two income trap: Why middle class parents are going broke*. Cambridge, MA: Basic Books.

- 접수일 : 2010년 10월 22일
 심사일 : 2010년 12월 08일
 심사완료일 : 2011년 02월 14일